

‘마은혁 임명에尹 운명 달렸다?’… 與, 도넘은 헌재 흔들기

국힘 “절차적 흠결·정치 편향성 문제”…헌재에 각하 결정 촉구 민주 “헌재 결정 따르지 않으면 내란 공범…비상한 결단” 강조

여야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정치 편향성 문제 등을 부각하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각하시켜왔다”며 “판례에 따라 원형식 국외장 개인이 독단으로 청구한 이 사건도 각하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영동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추천·임명했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

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며 “이번에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최 권한대행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마은혁 후보자를 공작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제정신으로 한 소리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듯이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권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국정협의를 실무협의를 응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을 향해 응하지 않았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원형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경찰 관계자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비화폰 확보

경호처 압수수색 ... 이광우 경호본부장 휴대전화도

이상민 전 행안장관도 수사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동시에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경호처 사무실에

도 수사관을 오전에 보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완료돼 “(분석 결과 김 차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관련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다수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허석근 소방청장에 대해 공수처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53명을 입건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계엄 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돼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비상계엄 당시 정보부사령부 사무실에 대시한의혹을 받고 있는 구삼희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란 국조특위, 5일 尹·김용현 대상 구치소 청문회 추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과 안중범이 갇혀 있는 곳까지 가서 비공개 신문한 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연이

어 방문해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다만 여당이 윤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반발한 바 있어, 구치소 청문회가 실제 여야 합의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다”면서도 “실제로 신문에 같이 가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